

여수·고흥, '드론 배송' 상용화... 도서지역 누빈다

여수 송도·소항간도 등 10개 섬 고흥, 배송점 11개소...8월 시행

전라남도 여수시와 고흥군이 관내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드론 배송 상용화'의 포문을 열고 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물류 취약지역인 10개 섬을 대상으로 생활 물품과 배달 음식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섬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상용화 사업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국비 9000만원이 투입된다.

여수시의 경우 돌산 진모지구, 돌산 작금항, 화정면 개도 등 3곳의 배송거점을 통해 송도·소항간도·대항간도·소두라도·대두라도·금오도·개도·상화도·하화도·제도 등 10개 섬 지역에 설치된 배달 지점으로 배송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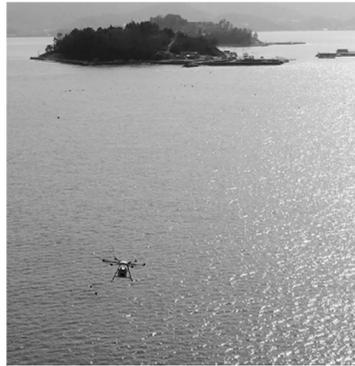
배송 물품은 생활 물품과 배달 음식 등이며, 초기 배송 중량은 5kg으로 시작해 오는 10월께 최대 10kg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송일은 권역별로 매주 또는 격주 금요일이며 배송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배송앱 '여수 플라이' 또는 전화(061-641-4959)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물품이 배달 지점에 도착하면 알림 메시지가 전송, 주



여수시가 송도·소항간도·대항간도 등 물류 취약지역인 10개 섬을 대상으로 생활 물품과 배달 음식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섬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고흥군이 8월 초부터 도양읍 섬 지역과 거금해양낚시공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흥군 제공

문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수시는 드론 배송망을 활용해 재난 구호물자나 취약계층 지원 물품 배송, 긴급우편 전달, 위험지역 순찰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 역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초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방침이다.

고흥은 득량도, 상·하화도 등 도양읍 섬 지역과 거금해양낚시공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배달 앱과 배송 거점 4개소, 배송점 11개소를 구축했다.

고흥군은 앞서 지난 9월부터 10일까지 득량도와 상·하화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배달 웹 가입 및 사용 방법을 안내했으며 이달 말에는 배달 웹 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정겨운객선 외에는 물품 수송이 어려웠던 섬 지역 주민들은 드론을 통해 생필품, 배달 음식, 택배 물품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의약품 등의 긴급 물품을 전달받아 응급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거금해양낚시공원과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 체류형 관광지에서는 식료품과 낚시용품 등을 드론으로 주문·배송 받을 수 있어 편의성 증대는 물론 이색 볼거리로 관광객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흥군은 드론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드론센터, 드론전시체험장, 드론 상업화실증지원센터, 비행시험통제센터 등 드론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서비스를 기회로 드론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전화 또는 배달 앱으로 접속해 배송거점에 등록된 가맹점을 찾아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드론실증도시 사업이 드론 배송의 상용화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과 상용화 모델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 '같이도시락' 사업 진행 24일까지 신규대상자 모집

전라남도 장흥군이 '같이도시락' 사업의 올해 하반기 신규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같이도시락 사업은 청소년그룹터기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해소와 식생활 개선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206명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았다.

하반기 사업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도시락은 청소년 1인당 1개씩, 주 1회(북부지역 수요일, 남부지역 목요일)대상자 가정으로 배송된다.

모집 대상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학교부정소년 포함)중 장애 부모,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위탁가정, 가족돌봄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이다.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우선 선발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같이도시락 사업은 단순한 식사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한 정서적 돌봄까지 연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벤처지원단 기술지원 기업 모집 광양시, 솔루션·제품화 등 지원

광양시가 전라남도, 포스코홀딩스와의 '2025년 벤처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기술력은 갖췄지만 공정 최적화나 실증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기술 솔루션 제공, 스케일업, 제품화 검증에 이르기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실행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은 현재까지 총 11개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제조설비 기획, 시험분석, 생산관리 등 자문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올해는 기술 자문을 넘어 파일럿 설비 설계 및 구축, 설비 개선 및 시운전, 공정 최적화, 제품 성능 평가 등 기술을 실제 생산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고도화된 스케일업 지원이 중점 추진된다.

포스코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출신 석·박사급 고경력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된 '포스코벤처지원단'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기술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ICT, 스마트팩토리, 계측·엔지니어링, 환경·에너지, 시뮬레이션, 금속·소재 등 8개 기술 분야에서 기업 수요에 맞춘 1:1 전문가 매칭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증 중심의 팀 프로젝트 방식도 도입해 생산 현장의 트러블슈팅까지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은 물론 도약단계 기업까지 폭넓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누리집 및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양=안영준 기자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 초청 특강 고흥군, 17일 오후 3시 문화회관



전라남도 고흥군 문화도시센터가 오는 17일 오후 3시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를 초청해 '죽음으로부터 배우는 삶'을 주제로 명사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유 교수는 다양한 방송과 언론 활동을 통해 법의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저서 '유성호의 유언 노트'를 출간했으며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 채널 '유성호의 데몬톡'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강연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한편 고흥군은 지방 소멸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민의 정신적 풍요와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국내 저명한 인문학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는 '명사 초청 문화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순천시 환경 자원봉사단체 '그린스타' 직원들이 오천동 일원 정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그린스타, 도심 정원 정비 봉사활동

전라남도 순천시가 최근 환경 자원봉사단체 '그린스타'와 함께 순천시 오천동 일대 도심 정원에서 정원 관리 및 환경정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참여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원 내 잡초 제거, 초화류 관리, 쓰레기 수거 등 정원 미관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청년농업인 4-H 드론 방제단 출범

전라남도 보성군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청년농업인 4-H 드론 방제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제단을 중심으로 고령 농업인(75세 이상, 1ha 미만 경작자)에 대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한 드론 방제단은 보성군 4-H연합회 소속 청년농업인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작업을 원하는 농

가에서 지역 농민상담소에서 접수하면, 기본 방제 기간에 재능기부(약제비 경작자 부담) 활동을 실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3년간 청년농업인 단체에 드론 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을 지속 지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들이 실제 농촌 현장에서 영농 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보성=양중수 기자